

울림과 잠김

반모임 순서

- I. 성호경, 성가, 예수님 초대 기도
- II. 묵상
 - †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 † 복음 읽기
 - † 말씀에 머물기
 - † 말씀의 울림
 - † 말씀에 잠김
- III. 생명말씀 및 실천사항 정하기
- IV.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
- V. 소공동체 기도문
- VI. 마침 성가

묵상 길라잡이

-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 마음 열기
 - 복음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집중하여 듣습니다.
- 말씀에 머물기
 -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구절을 적은 뒤 “이것이 오늘 나의 어느 부분에 다가왔는지”에 대해 묵상합니다.
- 묵상과 말씀의 울림 나누기
 - 묵상한 부분을 형제자매님들과 나누어 봅니다. <말씀의 울림>을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 말씀에 잠김
 - 본당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누고픈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빛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에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몸이 되신 말씀이옵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을 제 위에 보내시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옵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소공동체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3 35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의 울림

- 37 절: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If you ar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군사들의 조롱에도 당신 자신을 위해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분노와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떠올려 봅시다.

- 43 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담히 견디어내는 믿음의 자녀인지 묵상해 봅시다.

말씀에 잠김

42 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죽음 앞에서 인간은 그 한계성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또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인간의 순수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단순해지지만, 결코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극도로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주위의 환경을 탓하며 화를 내며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뒤돌아 보고 역경을 긍정적으로 헤쳐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힘이 들면 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성장 과정이 불우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늘 차별 대우를 받고 살아왔으며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주변을 탓하며 마음의 앙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억울한 삶을 살아 왔을지라도 그 고통을 발판삼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믿고 그 고통을 긍정의 에너지로 삼아 성공의 기반을 다집니다. 선택할 수 없었던 주어진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현재의 나를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 그는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청하는 예수님을 믿었으며 곧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분이 부활하여 모든 이들의 왕이 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한 이 죄수는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어떤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아주 먼 날이 아닌 바로 ‘오늘’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구원 받는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구원을 소유하고 체험할 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저에게 늘 자비로우시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끝까지 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눔메모

24 37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39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42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는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44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의 울림

- 41 절: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Two women will be grinding at the mill: one will be taken, and one will be left.”)
 내가 ‘데려간 사람’이 되었을 때와 ‘버려진 사람’이 되었을 때를 묵상하며,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나누어봅시다.
- 42 절: “깨어 있어라.”
 (“Stay awake.”)
 일상을 살아가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차린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에 잠김

- 44 절: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the Son of Man will come.”)

저는 참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일의 순서와 경중을 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어디가 허점이 있는지 예상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내고, 예측해서 그것에 대한 백업 플랜을 짜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지요, 그러면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생각과 마음이 마비된 듯이 멈춰버리곤 했습니다. 불안함을 넘어서 공포가 밀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예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나고 슬프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요동을 쳤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을 만큼 심한 반응을 보여서, 그런 제가 싫고 부끄러웠습니다. 고치고 싶었지만 늘 삶은 ‘생각지도 않은 일’의 연속이었고 저는 늘 비슷한 감정 파도에 습관적이리만큼 휘말렸습니다. 묵상 중에 내가 아직 30년 전 아빠의 사고에 갇혀 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그 사고로 아빠는 병원에 계시고 집안 형편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내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내 미래가 깨진 듯이 암담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다른 가족과 협력해서 잘 헤쳐나왔고 지금 나도 그럭저럭 잘살고 있기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아빠의 사고는 내 생각과 마음을 얼어붙게 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방벽을 쌓고 물 썰 틈 없이 정확한 것을 추구했던 이유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읽어주지 않고, 오로지 내 예상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나 스스로도 쳐대고, 옆에 사람들도 이리저리 통제했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내가 이해해 갔습니다.

이 모든 상처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여러 편집, 강박적 습관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기보다 내 마음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말과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치유 될까? 내가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많이 들었고, 에이, 안 될 거야,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주 편해진 제 모습을 만났습니다. 조바심치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하는 제 안에 굴레에서 벗어나 느긋해지고 포용하는 폭도 좀 넓어지고 여유로워진 저를 발견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저 자신의 상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좋아졌고, 내 안에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서서히 제 안에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당한 불행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제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지만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성가와 함께 해온 신앙생활

문계송 프란치스코

미시간으로 와서 직장 생활을 하며 성 김대건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1999년 여름 어느 주일날, 친교실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던 (지금도 고인이 되신) 김 요한 형제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가 연습 때문에 먼저 가 봐야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혹시 저도 성가대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쭙어보았습니다. 며칠 후 성가대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성가대 경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몇 주 후 성가대에 들어와도 좋다는 말씀에 설레는 마음으로 성가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노래를 좋아해서 성가대에 관심은 있었으나, '주중에 한번 성가대 연습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마음만 있을 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가대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주일 미사 중에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목청껏 성가를 부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야근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중역들도 정시에 퇴근했기 때문에, 미시간에서는 주중에 성가대 연습에 참석하는 데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 성당의 성가대도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모여 다음 주일에 부를 성가를 연습했는데, 쉬는 시간에는 준비해 온 간식을 나누기도 하고, 이따금 연습 후에 친목도모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 음악과 달리 성가를 부를 때는 발성법에 따라 불러야 한다며 성악을 전공하신 지휘자로부터 예를 들어, 입천장을 들고 소리를 머리로 보내라든가, 악보에 PP (피아니시모, 매우 여리게) 가 나오면 소리는 작게 내기만 입은 더 크게 벌려야 한다 등의 말씀을 듣고, 발성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했지요. 차마 말은 못 하고 속으로 아니 어떻게 머리로 소리를 보내지? 소리를 작게 내면서 입은 왜 크게 벌려야 하지? 하며.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본당 설립 25주년을 맞는 2000년이 되어, 25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부를 많은 곡을 모든 대원이 열심히 연습하였고, 저도 음악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후 컴퓨터로 음표를 하나하나 입력하여 다시 그것을 재생해서 반복해 들어가면서 음을 익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시간에 와서 겨우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라, 기업문화가 한국과는 상이한 미국회사의 업무수행 방식과 언어에 적응하라, 가족과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으나, 성가를 부르는 동안에는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고, 음악회 준비를 위해 연습했던 곡 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성가를 부르면서, 힘들었던 때에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시간이 훌쩍 지나, 본당 설립 40주년을 맞는 2015년이 되어, 또다시 기념 음악회 준비로 몇 달 동안 모두 목이 설 정도로 맹연습하였고, 거기에다 노래에 맞춰 울동까지 준비하느라 대원들 모두 탈진 일보 직전까지 갔으나, 음악회 당일 피아노 반주에 맞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각의 음이 모여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며 준비한 대로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하여 성가대원 모두가 땀 흘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또 한 번 해냈다는 희열을 맛보았지요.

음악회 준비로 연습한 곡 중 ‘내 발을 씻기신 예수’를 부를 때는, UC Berkeley 대학원 박사 과정 입학 허가받았다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 고민 끝에 학업 대신 쉽지 않은 수도자의 길을 택한 딸 수녀 생각으로 마지막 대목에서는 늘 목이 메어, 소리는 나오지 않고 눈물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 주여, 나를 보내 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훗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안아 주소서.)

요즈음은 성가와 함께한 지난 20여 년간의 세월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새삼 느끼며, 성가대에서 성가를 통해 인연을 맺었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가대에서 높은음을 제대로 못 낸다고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면, 또다시 남은 열정을 불태워 봐야지 하는 마음은 일흔이 넘은 본인 혼자만의 욕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전 지휘자인 조 토마스 형제님이 성가 연습실 화이트보드에 적어 놓은 글귀, ‘성가대 활동이 봉사가 아닌 봉헌의 삶이 되게 하소서!’, 대로 항상 봉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동네방네 메아리

- (TR1/TR5) 반원들과 함께 애플 피킹을 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 (TR3) 지난달 저희 반 실천사항이 ‘최소한 한 번 보답을 바랄 수 없는 곳에 선행을 베풀기’ 였습니다. 보답을 바랄 수 없는 곳에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려다 보니, 나 또한 하느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행을 해 오고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TR4) 김성민 필립보, 조은아 엘리사벳 가정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 (NV4)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기원하는 평화의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실천 사항

1. 위령 성월을 맞아 묘지를 방문하여 돌아가신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2.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떠올려보며 감사의 목록 만들어보기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주최)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주최)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문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